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9년 5월 3일(금)

(음력 3월 29일)

Пятница

3 мая 2019г.

№ 17(116834)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5월 1일 러시아에서는 봄과 노동의 날을 기념한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 단신

### 〈사할린에서 황금가면〉축제 개최

4월 20일부터 4월 29일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체호브센터에서 모스크바 주도극장 4곳의 예술인들이 공연했다. 그들의 공연은 러시아 중요연극상 25주년에 즈음한 것이다. 연극상 25주년에 즈음한 〈황금가면〉의 첫번째 프로젝트는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축제로 된 것이다. 연극예술의 팬들은 아.에스.푸쉬킨극장, 포트르포멘코의 워크샵의 공연을 봤다.

〈사할린에서 황금가면〉축제 개최식에 주지사 왈레리 리마렌코가 참가했다. 그는 〈극장의 해〉에 사할린에서 첫번째 기념축제가 진행되는 것이 뜻깊다고 했다.

"연극예술의 모든 팬들을 위한 〈황금가면〉은 확실한 브랜드이며 질적 향상이 무르익은 공연 예술의 상징이라고 봐야 한다. 우리 주는 러시아 중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 사할린 주민들에게 있어 좋은 선물이며 섬과 수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됐다고 볼 수 있다"라고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 권한 대행이 축하했다.

## 사할린, 전러시아 〈추념의 교대〉에 참가

지난 4월 26일(금)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슬라와〉광장에서 전러시아 군사애국심전념군중집회가 진행됐다. 베테랑, 정부관계자, 탐사운동참가자, 학생들이 성화대에 헌화했다.

〈추념의 교대〉의 주요 과제는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참전용사의 유골을 발굴하고 이름을 밝혀내 장례식을 치르는데 있다. 최근에 사할린에서는 389명의 전사한 군인과 장교의 이름을 확립하는데 성공했다. 탐사대의 활동의 중요성을 사할린주정부 및 주지사 행정실 제1부부실장 이성철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상징적으로 승리의 날을 위한 행사들 중 우리는 전러시아 〈추념의 교대〉로 명절기념을 시작한다. 탐사대 덕분에 패배 전쟁의 역사는 조국을 위해 전사한 사람들의 이름으로 보충되고 있다. 오늘 이 장소에 베테랑, 현재 복무중인 군인들, 청소년 사회연합관계자들이 전사한 참전용사들을 추모하고 탐사대의 시즌 시작을 위해 모였다."

실종 군인의 이름과 운명을 확립하는데 큰 개인적 기여를 한 엠펜 니코노브 사할린탐사대원은 러시아 국방부의 탐사운동에서의 공로를 세워 3급 휘장을 수상했다.

성화대에 헌화한 후 〈슬라와〉광장에서부터 군사 장비 대열 이동이 시작됐다. 군중집회참가자들은 사할린 남부지역으로 내려가서 베테랑과 청년들과의 만남을 가질 것이다.

사할린탐사원들은 탐사운동을 계속 실행할 준비가 되었다. 〈러시아 탐사운동〉 지역부 아르쎘 반두라 지도자가 새 탐사시즌 계획에 대해 홍보했다. "늦은 가을까지 우리는 탐사작업을 할 것이다. 숲수집에 가서 우리는 쿠릴 전쟁터를 탐사하고 군인들의 유골을 발굴하고 이름을 확립하는데 성공하리라 믿는다"라고 아.반두라가 확언했다.

〈러시아 탐사운동〉 지역부는 숲수집에서 이미 수년째 탐사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야 한다. 그들은 쿠릴 전쟁터에서 소베트 군인의 유골 몇 구를 발굴하는데 성공한 바 있다.

## 사할린주 지도자, 직업동맹 직원들과의 만남

5·1절 전야에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사할린주직업동맹 관계자들과 만나 그들의 질문에 대답했다. 모임은 약 3시간 계속됐다.

모임을 열면서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사할린주 정부와 직맹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를 설명했다. 보건, 주택 및 도로 건설, 교육, 그리고 빈곤 퇴치 문제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할린 및 쿠릴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은 사할린주정부의 우선 순위에 있다. 구체적인 단계는 이미 수행됐다. 올해 초부터 예산구의 모든 직원들에게 급여를 20% 증가시켰고 효과적인 의료기관의 재료 축진 메커니즘을 시작했다. 이외 사회지원의 새로운 조치가 도입되었으며 이에는 추가로 예산에 4억루블을 제공했다. 총 30억루블은 2019년에 사할린 및 쿠릴섬 주민들의 소득 증가를 위해 할당했다"라고 주지사가 밝혔다.

직업동맹 대표들은 섬주민들의 복지를 높이기 위한 지역정부의 조치를 지지했다. 회의에서 모두가 관심있는 문제에 대해 주지사에게 질문할 수 있었다.

모임 참가자들은 많은 난문제들을 내놓았다. 에너지산업은 직원들을 위한 일리인스키부락에 건설되는 주택의 질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보건분야 전문가들은 비코브부락 보건시설의 경우 혈액 성분을 비롯한 검사 재료가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주지사는 위 문제해결과정을 직접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문화분야 관계자들은 전시장과 전시

장 전문가-가이드 부족에 대해 주지사에게 알렸다.

"우리는 현 시점에 비해 3-4배를 더한 박물관이 있어야 한다. 문화부와 나는 이미 전시회에 적합할수 있는 세 개의 대상을 발견했다"고 주지사가 밝혔다.

가이드 부족에 관한 주지사의 견해에 따르면 이 문제는 가까운 시일안에 해결될 것 같다. 지역 지도자는 섬에서의 관광이 발전되면서 가이드가 좀 더 필요할 것이며 젊은이들은 관광분야에서 전문가이드로 활동하려는 관심이 모일 것이다. 단념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항구인프라가 개발되지 않은데 있다.

"항만 경제는 사할린지역의 미래이다. 우리가 태평양 지역에서 경쟁의 우위를 갖추려면 강력하고 발전된 인프라를 확보해야 한다.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 주민들의 지지를 기대한다"라고 주지사가 말했다.

사할린지역 직업동맹단체 회장 아나톨리 크루트첸코는 주지역 지도자와의 만남이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진행되기를 믿는다"라고 말했다.

"우리에게는 주지도자와 만나 근로자들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좋은 방법을 찾기 위해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아나톨리 크루트첸코가 지적했다.

직맹직원들과의 3시간 회의를 하는 동안 지역의 가장 중요한 분야에 관한 많은 질문들이 논의되었다. 주지사의 말에 따르면 그 문제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통제될 것이다. 회의석상의 끝으로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직맹직원들에게 봄과 노동의 날을 축하했다.

## 사할린주 주택건설 및 석유생산 증가

올해 1월-3월 간의 섬 지역의 사회경제개발 결과가 총화되었다. 총 지역 제품 생산량은 2천833억 루블에 달한다. 이것은 2018년 동시기에 비해 5.1% 증가한 셈이다. 산업생산량은 5.5% 증가하여 2천774억 루블리에 달했다.

사할린과 쿠릴섬들에서는 작년 동시기에 비해 2배 이상되는 8만5천평방미터의 주택이 건설됐다.

기체응축수를 포함한 석유생산량이 520만톤에 달했다. 사할린 석탄기업은 260만톤 석탄을 생산했다. 이 지표는 작년에 비해 거의 11% 더한 셈이다.

이외 지역에서는 생선 통조림, 우유제품, 치즈, 버터, 육류, 흘레브제품 생산량증가가 지적됐다.

섬 기업들은 2018년 1/4분기보다 8.9 더한 9억 루블리에 해당하는 농산물을 생산했다. 우유(28.1%), 계란(3.2%), 육류(0.8%)의 생산량이 증가했다. 소, 가금류, 돼지의 수 역시 증가했다.

소비자 시장에서는 도매무역량이 13.2%, 공공 급식량이 3.8% 증가했다. 사할린 주민들을 위한 유료 서비스와 소매량 증가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2019년 3월 말에 등록된 실업률은 0.72%의 수준에 머물렀다.

주한국어경시대회에서

# 사할린 학생들, 한국의 탈 문화를 알아보고 경연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26일(금) 사할린국립대학교에서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경시대회가 개최되었다.

주정부(교육부)·사할린국립대학교(어문역사동양학대학)·주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출장소(사할린한국교육원)가 공동으로 장기간 주최하는 이 행사에는 이번에 돌린스크, 코르사코브, 홈스크, 크라스노고르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 학생 17명이 참가했다. 대회 규칙에 따라 각 교육기관은 참가자 1-3명만 대표할 수 있었고 작년 대회 초 우승자는 올해는 재우승할수 없다는 제한(2년에 1번 가능)이 있었다. 이날 발표주제는 <한국의 탈 문화>였다.

이날 세르게이 나우모브 주정부 부수상, 주유즈노사할린스크영사출장소 박기동 소장, 사할린국립대 올레그 표도로브 총장 대행이 대회 참가자들을 환영했다. 인사들은 한국어가 점점 인기가 높아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참가자들이 긴장하지 말고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며 우승할 것을 기원했다.

심사위원회는 사할린한국교육원 김주환 원장, 사할린한인협회 박순옥 회장, 사할린주한국어교사협회 회장 코르네예와 인나 블라지미롭나 사할린국립대 교수로 구성되었다.

1부에 발표한 한국어초보자들은 김명희의 <하회탈 쓰고 덩실>이란 시를 감상해야 했다. 이 과제는 쉽지는 않았다. 그래도 참가자 대다수가 잘 소화하고 연기력까지 발휘하면서 발표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프레젠테이션까지 준비하여 심사위원들의 점수를 따냈다.

1위는 크나제와 안나(유즈노할린스크 동양김나지아 학생, 한국어교사 김 나탈리아), 2 위는 김 와네사(유즈노사할린스크 제2김나지아, 한국어교사 스미르노와 알렉산드라), 3위는 김 드미트리(홈스크 만천 한글학교, 강사 이진선)가 차지했다.

그 외 특별상도 수상했다. <용감과



승리에 대한 의욕>상은 마이마노와 안겔리나(코르사코브 한글학교, 강사 박창순), <가장 오리지날 발표> 상은 주롭스카야 웨로니카(돌린스크학교, 교사 박경숙), <경연대회의 발견> 상은 카투나 울리아(크라스노고르스크 한글학교, 강사 김련화), <창작 매력> 상은 김 웨로니카(유즈노사할린스크 제2 김나지아, 교사 스미르노와 알렉산드라), <청중들

의 마음을 움직일수 있는 능력> 상은 이 올레그(유즈노사할린스크 제30중학교, 교사 안학용)가 수여받았다.

몇년간 한국어를 배운 중고등학생 3명은 2부에 발표했다. 이들의 과제는 김시중의 시 <탈 타령>을 읽고 이 주제를 이어 발표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발표자들이 심사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해야 했다. 질문을 이해하고 소화하는 것, 대답에 자신의 의견을 담아야 하는 것이 참가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아닐까 싶었다.

가장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전한 동양김나지아 11학년생인 김 타이시아(1등)가 표명됐다. 그는 얼마 전에 한국에서 화제가 된 드라마 <스카이>의 주인공들을 예를 들어 발표했다. 2위는 크라스노고르스크 한글학교 김 비아나(10학년, 강사 김련화), 3위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제30중학교 8학년생인 고르핀첸코

블라디슬라와(교사 안학용)가 차지했다.

이번 한국어경시대회는 이틀에 걸쳐 진행되었다. 학교학생부에 앞서 지난 25일(목) 사할린국립대 학생 15명이 <탈은 다양해도 사람은 사람다워야 한다>는 주제로 글짓기를 펼쳤다. 학생들의 글을 읽어본 심사위원들은 1등은 드료모와 알렉산드라, 2등은 보꾸 밀리야, 3등은 텐(정)명희가 했다고 전했다.

이날 경시대회 모든 참가자들은 참가증서와 함께 사할린한국교육원이 준비한 상품을 받고 수상자들은 수상 디플롬과 함께 주교육부의 상금을 받았다. 또한 대회 발표에 협조한 학교 교사와 한글학교 강사, 대회 준비·개최에 힘을 아끼지 않은 사할린국립대 한국어과 교수 모두가 사할린주교육부 감사장을 수여받고 사할린한국교육원에서는 상금(수상 제자 있는 경우) 또는 기념품을 받았다.

이날 심사위원들과 교육부 전문가들은 경시대회에 참가하는 학생들의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는 점도 강조했다.

(취재: 글 / 배순신, 사진 / 이예식)

## 이 모 저 모

### 토마리주민, 대조국 전쟁 역사에 대한 지식 점검

지난 4월 27일 토마리 주민들이 대조국 전쟁 역사에 대한 자신의 지식을 확인했다. 모든 희망자들을 위한 이 어려운 시험을 구역의회 산하 청년의회가 개최했다.

익명 테스트는 토마리학교에서 진행했다. 질문에는 학교학생들과 어른들이 답변했다. 질문이 어려워 때로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테스트를 진행한 교사도 준비하지 않은 분은 질문에 답변하지 못했을 거라고 지적했다. 30개의 질문들을 30분 간 답변해야 했다. 테스트에는 19명이 참가했다.

### Томаринцев испытали на знание истории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27 апреля жители Томари проверили свои знания истории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Непростое испытание для всех желающих устроил молодежный парламент при районном собрании.

Анонимное тестирование прошло в томаринской школе. За парты сели и школьники, и взрослые. При этом сложность вопросов нередко ставила в тупик. Даже проводивший тестирование педагог отметил, что они могли быть не по зубам неподготовленному человеку. Ответить на 30 вопросов предлагалось за 30 минут. В тестировании приняло участие 19 человек.

### 사할린박물관, <스타 워즈>날 행사 영화 팬들을 초대

사할린주향토박물관이 <스타 워즈> 전설적인 영

화 팬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한다. 5월 4일 박물관이 이들을 위해 활동교실, 놀이와 플래쉬모브를 진행한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박물관 측에 따르면, 밝은 편의 팬들을 위해서는 특별 마스터클래스를 준비했다고. 이들에게 진짜 제다이 검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줄 예정이다. 검은 편의 팬들을 위해서는 영화 주인공들의 탈(가면)을 만들 예정이다. 이 두 활동교실은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진행된다. (추천 참가자 나이는 5살부터)

13시에는 영화에 관한 한 퀴즈 게임이 열릴 예정이다. 수상자들에게는 만화상점이 제공한 상품을 수여한다.

그 외 이 시간에 아이들을 위한 활동적인 게임을 진행하고 제다이 검을 이용한 격투기 경기 역시 개최할 예정이다.

14시에는 박물관 직원들이 박물관 마당에서 플래시모브를 할 예정이다.

하루종일 박물관에는 환상사가 영화를 상영할 것이며 팬들을 위한 박람회(주인공 모습을 담은 쿠키, 사진 촬영장 등)도 개최된다. 영화 주인공 의상을 입은 참여자들은 추첨에 참가할 수 있다. 입장료는 무료.

### Сахалинский музей зовет всех фанатов на день «Звездных войн»

Сахалинский 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й приготовил подарок для фанатов легендарной киносаги «Звездные войны». 4 мая учреждение проведет для них мастер-классы, игры и флешмоб.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этом можно совершенно бесплатно.

Как рассказали в музее, для приверженцев светлой стороны приготовили особый мастер-класс — их научат делать настоящий джедайский меч. А поклонники

темной стороны смогут изготовить устрашающие маски героев киносаги. Оба мастер-класса пройдут с 11:30 до 12:30 (рекомендуемый возраст участников — от 5 лет).

В 13:00 начнется викторина для знатоков фильма. Отличившихся наградят призами от магазина комиксов.

Кроме того, в это же время в музее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 подвижные игры для детей. Организуют бои на джедайских мечах.

А в 14:00 сотрудники проведут на территории музея флешмоб.

В течение дня в музее будут крутить фильмы фантастической саги. Здесь же организуют ярмарку для фанатов: с печеньем с героями, фотозоной и т. д. Те, кто придет на праздник в костюмах, смогут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розыгрыше призов.

Вход на праздник свободный.

### <루스키 레렘>앙상블, <손체워로트> 전국콩쿠르의 대상 받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손체워로트(지점)> 제 9회 민속창작전국경연대회가 진행되었다. 섬지역의 두 민속단이 경연대회의 한 부문 - 보컬에 참가했다. 이들 외에 수십개의 민속단(주로 극동지역)이 이 부문에서 경쟁했다.

콩쿠르는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었다. 섬지역 대표단은 두 민속단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며 26명으로 구성되어 큰 규모였다. 사할린 민속단원들의 레파터리는 다양한 노래였다.

사할린민속합창단은 <아마추어>부에서 <야 나 페츠키 몰로젤라> 노래를 했으며 <루스키 테렘> 민속앙상블은 <프로피(전문)>부에 출전하여 <오이, 츠베쵸트, 갈리나> 민요를 불렀다.

(8면에 계속)

### 사할린 학생 150여 명, 전통에서 생의 기를 찾아보았음

지난 26일(금) 오후에 사할린국립대에서 <전통에서 생의 기를 찾으며>란 주제로 150여 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2019 사할린주 한국문화경

옥)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주정부의 협력하에 진행되는 연례 한국학 경시대회는 올해는 러시아에서 극장의 해>라

서 이번 주제는 극장과 관련 돼 있었다. 5-8학

시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미 몇 년간 사할린국립대 한국어과(언문역사동양학 대학 학장 임 엘위라)와 사할린주한인협회(회장 박순

년생들은 <한국의 탈 문화>, 9-11학년생들은 <한국의 연극>, 대학생들은 <한국의 극장: 전통과 현대>란 주제로 1시간 간에 30개

과 시야를 넓히는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배순신 기자)  
(사진: 사할린국립대 제공)



### <60+> 클럽을 공식적으로 열어

지난 27일(토) 17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60+> 클럽 설립 공식개막행사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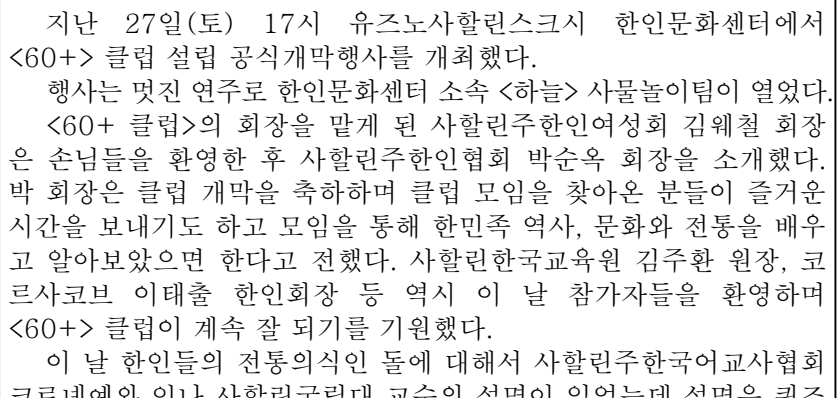
행사는 멋진 연주로 한인문화센터 소속 <하늘> 사물놀이팀이 열었다. <60+ 클럽>의 회장을 맡게 된 사할린주한인여성회 김웨철 회장은 손님들을 환영한 후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옥 회장을 소개했다. 박 회장은 클럽 개막을 축하하며 클럽 모임을 찾아온 분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모임을 통해 한민족 역사, 문화와 전통을 배우고 알아보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사할린한국교육원 김주환 원장, 코르사코브 이태출 한인회장 등 역시 이 날 참가자들을 환영하며 <60+> 클럽이 계속 잘 되기를 기원했다.

이 날 한인들의 전통의식인 돌에 대해서 사할린주한국어교사협회 코르네예와 인나 사할린국립대 교수의 설명이 있었는데 설명은 퀴즈로 이어져 정답을 맞힌 분들은 다음 모임에서 시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번 모임에서 지난 달 한국 김포에서 개최된 사할린동포화가의 전시회에 대해 주명수 화백이 영상을 보여드리며 이야기했다.

끝으로 여러분들이 카라오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흥미롭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박영자)



### 재외동포재단,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참여 기업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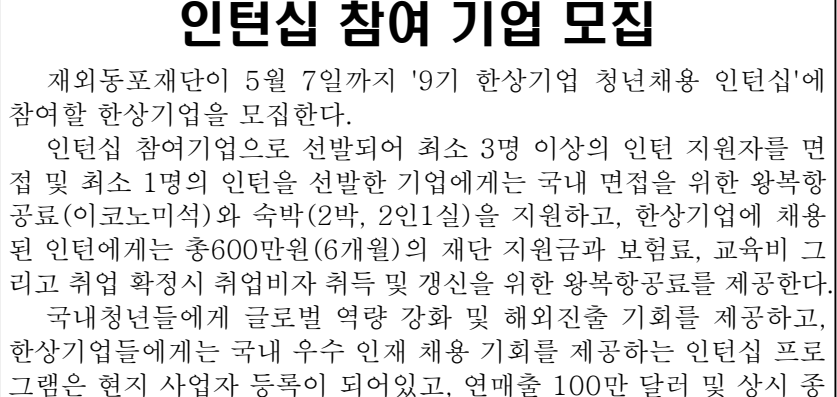
재외동포재단이 5월 7일까지 '9기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에 참여할 한상기업을 모집한다.

인턴십 참여기업으로 선발되어 최소 3명 이상의 인턴 지원자를 면접 및 최소 1명의 인턴을 선발한 기업에게는 국내 면접을 위한 왕복항공료(이코노미석)와 숙박(2박, 2인1실)을 지원하고, 한상기업에 채용된 인턴에게는 총600만원(6개월)의 재단 지원금과 보험료, 교육비 그리고 취업 확정시 취업비자 취득 및 갱신을 위한 왕복항공료를 제공한다.

국내청년들에게 글로벌 역량 강화 및 해외진출 기회를 제공하고, 한상기업들에게는 국내 우수 인재 채용 기회를 제공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은 현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고, 연매출 100만 달러 및 상시 종업원 5명 이상으로 인턴 직원의 실무교육이 가능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재외동포재단은 인턴 수료 후 정규직 채용이 가능한 기업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며, 참가 기업은 인턴에게 매달 최소 500달러 또는 그에 상응하는 숙소·교육·식사 등 현물을 인턴에게 직접 지원이 가능해야 한다.

9기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한상기업은 5월 7일까지, 10기는 8월 5일부터 8월 26일까지,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한 뒤 회사 소개서 1부, 회사 사진 3매,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를 한상넷 홈페이지(www.hansang.net)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2015년 시범사업으로 시행된 한상기업 청년채용 인턴십은 현재까지 38개국 256개 회사에서 405명 인턴을 선발하였으며, 국내청년과 한상기업의 호응에 따라 계속 시행될 예정이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 '100년의 미래, 재외동포와 함께' 세계한인언론인대회 개막

전세계 750만 재외동포의 이익과 입장을 대변하는 세계한인언론인협회(회장 전용창)가 주최하는 '제18회 세계한인언론인대회'가 2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성대하게 개막했다.

'지나온 100년 다가오는 100년 한반도, 재외동포와 함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전세계 23개국 45개 도시 재외동포 언론인 80여명, 내외빈 인사 등 200여명이 참가했다.

전용창 회장은 대회사에서 "세계 한인 언론인들은 조국이 엄혹한 독재체제 아래 있을 때 국내외 반독재 민주화 투쟁에 발맞추어 미국의 민주화에 바람을 불어넣는 불쏘시개 역할을 다했다."며 "다가올 100년은 애국선열들과 호국영령들의 희생으로 이룬 민주주의와 통일을 완성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세계 한인 언론인들은 국내외 동포들과 손을 맞잡고 다가올 100년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머지않은 장래에 서울역에서 평양 가는 기차표를 끊는 날이 속히 도래하기를 고대하며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더 큰 진전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회장은 이어 "세계한인언론인협회가 비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의 역할을 공유하며 실천적인 대화를 이어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18회 대회의 개막을 선언했다.

2019년부터 세계한인언론인협회 총재로 추대된 정영수 CJ글로벌경영 고문은 환영사에서 "이번 대회가 한반도와 한민족을 소중하게 기억하고 생각하며 대한민국 100년의 발전과정을 성찰하고 나아가 희망찬 미래 100년을 재외동포들과 함께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재외동포들이 현지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주류사회와 동행하는 일에 한인 언론인들이 솔선수범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매사에 긍지를 갖고 더 열심히 정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축사에서 "남북관계가 앞으로 도 가야 할 길이 멀고, 헤쳐나가야 할 과제가 적지 않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지금까지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한반도를 위해 멈추지 않고 씬 없이 나아가겠다"며 "750만 재외동포의 눈과 귀가 돼 주는 한인언론인 여러분께서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김덕룡 민주평통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세계 한인 언론인의 해안과 지혜로 세계 각지의 한인 상공인과 한민족의 위기극복 방안과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 '21세기 위대한 한민족시대'를 향한 튼튼한 초석을 놓는데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이종걸 의원, 자유한국당 김광림·강석호 의원,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 이상진 외교부 재외동포영사실장, 김진형 연합뉴스 상무 등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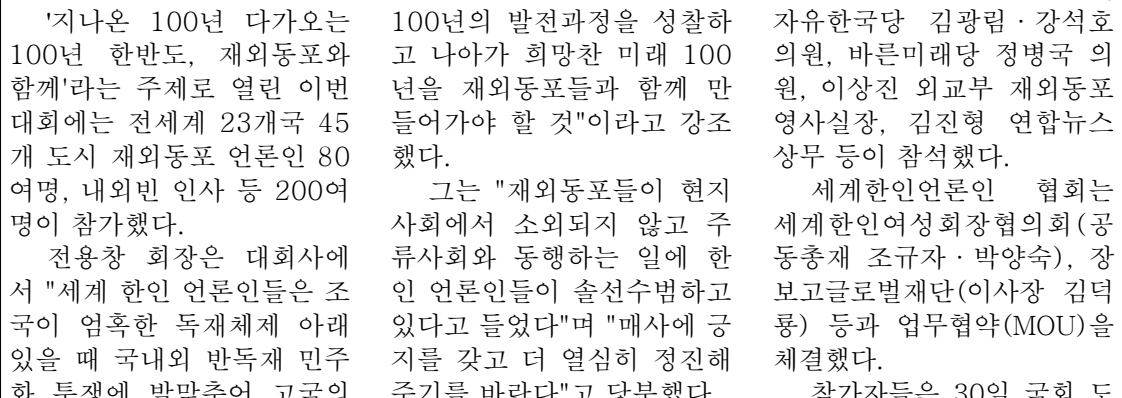
세계한인언론인 협회는 세계한인여성회장협의회(공동총재 조규자·박양숙), 장보고글로벌재단(이사장 김덕룡)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참가자들은 30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리는 '1인 미디어 글로벌비즈니스 전략', '임시정부 수립 100년 해외에서의 독립운동사'라는 주제의 특강을 들었다.

이어 5월 1~3일에는 광주광역시 5·18국립묘지, 완도 윤선도 문화유적지, 함평 나비축제 현장 등을 방문해 취재한다. 중간에 재외동포언론 진흥 방안을 토론한 뒤 의견을 모아 정부와 유관기관, 국회 등에 전달할 결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이번 대회는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언론진흥재단, 재외동포재단,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 한국언론학회, 해외교포문제연구소, 광주광역시, 장보고글로벌재단 등이 후원한다.

【한국(서울)=세인협 공동취재단】  
이석수 기자



### 사할린한인 탁구 챔피언경기대회 개최

지난 27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 <애플> 사옥의 운동실에서 제 34회 사할린주 한인디아스포라 탁구챔피언 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회 주최자인 사할린주탁구협회(회장 강만규)에 따르면 올해 대회에는 코르사코브, 홈스크, 네웰스크시, 코스트롬스코예마울과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동포선수 42명이 참가했다.

대회 개막에는 주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출장소 광기동 소장, 사할린한인협회 박순옥회장 등이 초대참가했고 <에트노스> 예술학교 한민족예술과 사물놀이팀이 공연을 선보였다.

이날 팀별 경기에서는 유즈노사할린스크팀이 우승했고 2위는 홈스크 팀, 3위는 네웰스크팀이 차지했다.

개인별 경기 결과는 다음과 같다:

40세 미만 그룹(남): 1위는 김 에리크(홈스크), 2위는 윤 안드레이, 3위는 김 제니스가 차지했다. 수상자 모두가 유즈노사할린스크 주민이다.

40-50대 그룹(남): 1위는 임 블라드(유즈노사할린스크시), 2위는 김 위탈리(홈스크시), 3위는 이 알렉산드르 (유즈노사할린스크시).

60세 이상 그룹: 1위는 김 겐나지(유즈노사할린스크), 2위는 천 블라지미르(네웰스크), 3위는 공 아나톨리(홈스크)다.

여성그룹 중 1위는 가블릴로와(김), 유즈노사할린스크, 2위는 강 나탈리아(유즈노사할린스크), 3위는 페도르 첼코 나스짜(홈스크)가 차지한 결로 전해졌다.

2인조 그룹 1등은 김 겐나지-천 블라지미르(유즈노사할린스크/네웰스크), 2등은 이 알렉산드르-유 세르게이(유즈노사할린스크/네웰스크), 3등은 원 왜체슬라브-김 에리크(유즈노사할린스크/홈스크)에게 영광이 돌아갔다.

(취재: 이예식 기자)



#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 Инвесторы из Южной Кореи предложили проекты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глашение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егодня было заключено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Ассоциацией по защите корейских инвесторов и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й корпорацией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и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имеют давнюю историю партнерских отношений. В 2018 году объем взаимной торговли увеличился, по сравнению с 2017-м, на 44 процента и превысил 7 миллиардов долларов. Это почти 46 процентов от всего объема внешней торговл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 Большие перспективы дл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представляют инвестиционные проекты. Сегодня в экономике региона работает около 150 миллионов долларов южнокорейских инвестиций в отраслях строительства, транспорта, торговли, геологоразведки, — отметил и.о.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Сидоренко. — Областные власти готовы оказывать поддержку инвесторам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 помогать в составлении бизнес-планов и получении мер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предлагать инвестиционные площадки по запросам иностранных партнеров.

По его словам, южнокорейские инвесторы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получают широки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выгодного вложения капитала. На островах действуют три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Горный воздух», «Южная», «Курилы». Режим свободного порта Владивосток распространен на Корсаковский и Углегорский районы. Создана комплексная система институтов развития, которые направлены на поддержку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 Мы рады заключить деловое соглашение с сахалинским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и сделаем все возможное, чтобы в Южной Корее узнали об островах как о перспективном для вложения инвестиций регионе, — сказал президент строительной компании Coryo Jonghap Development и ассоциации «Дом фамилии Мун» Мун Санг Джу. — Корейские специалисты имеют ценные наработки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жилья, коммерческих и социальных объектов, по ремонту дорог и развитию транспорт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Мы с радостью готовы поделиться опытом с сахалинскими коллегами.

Делегаци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и предложила более десяти направлений для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частности, иностранные инвесторы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в создании на Сахалине предприятия по биофармацевтике, в том числе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агар-агара, а также завода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минеральной воды и березового сока, заготовке и переработке дикоросов. Кроме того, южнокорейски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готовы вкладывать средства в добычу и переработку морепродуктов — минтая, трески, сельди, краба и других биоресурсов — с последующим экспортом. Интерес представляют бальнеологический туризм, деревообрабатывающая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и производство строительных материалов.

(Пресс-служб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Вспоминая прошлое

## Корейский передвижной

(Продолжение. Начало в №14, 15, 16)

С 1954 года репертуар театра заметно обогатился с приездом из Ленинграда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режиссера Григория Петровича Кима. Поставленные им спектакли принесли театру заслуженный успех, подняв его на более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Многие спектакли шли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но в театр с большим удовольствием и интересом ходили не только корейцы. Советские переселенцы, приехавшие на Сахалин и европейской части России, с Украины, Белоруссии и других республик СССР, считали необходимым хотя бы раз побывать в корейском театре. Кого-то, безусловно, привлекала «восточная экзотика» с яркими костюмами, необычными декорациями и, конечно же, самобытное исполнение национальных корейских песен и танцев. И со временем у театра сложилась аудитория «русскоязычных» почитателей, преодолевшая языковой барьер благодаря великой силе искусства.



Как уже отмечалось, большую часть времени года артисты проводили в гастрольных поездках, длившихся иногда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Корейский театр в большинстве случаев выступал в далеких от центра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на лесосучастках и рыбацких станах, где редко бывали другие театры. О большой напряженной гастрольной работе рассказывали и сами работники театра. Так, например, в 1952 году артисты показали свыше 200 постановок на предприятиях рыб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около 80 спектаклей у сахалинских шахтеров и 25 — на лесопунктах.

Особ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пользовался коллектив концертно-эстрадного ансамбля. В числе любимцев сахалинской публики были Со Бон Ги — исполнитель национальных танцев, Ким Ги Бон — вокалист, Ким Чун Су — танцовщица и музыкант. Она великолепно играла на барабане, саксофоне и кларнете. В ее личном архиве, который в данный момент находится в фондах Сахалинского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сохранилось несколько фотографий 50-х годов. На одной из них изображен Сон Бон Ги во время исполнения традиционного танца с бубном и колотушкой и лентой на головном уборе. Оригинальность танца в том, что артист, стоя на коленях, делал движения головой таким образом, чтобы лента вращалась с большой скоростью вокруг тела. При исполнении этого танца тре-

бовалась высокая пластика, которой Сон Бон Ги владел в совершенстве. На других фотографиях, слегка пожелтевших от времени, изображены музыканты и вокалисты — Ли Ким Бок (саксофон), Тен Ин Мок (скрипка), Ким Пок Чун (баян), Ли Бен Со (руководитель ансамбля), Пак Чун Хва, Сон Тен Ним, Тин Чур Чон.

Драматическая труппа театра также каждое лето выезжала на гастроли. Артисты давали представления как на корейском, так и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ах. В 1955 году состоялась премьера спектакля «Дружба, скрепленная кровью» по пьесе актера и режиссера театра Николая Ни. Спектакль шел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Судя по рецензии, опубликованной в газете «Советский Сахалин», пьеса тепло была встречена зрителями. Драматург затронул актуальную тему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наций между собой. Спектакль о дружбе двух семей: китайского партизана Сяо и корейца Ли Ира — его друга по партизанскому отряду, сражавшегося с японскими оккупантами в Маньчжурии, за 20 лет до начала американской агрессии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Во время внезапного нападения на партизанскую деревню жена Ли Ира была убита, а сам он пропал без вести. Сяо, считая друга погибшим, усыновил двух его детей, изменив их имена. Прошло время, и в победившем народном Китае мальчик Сян Сун и девочка Сюн Ювор, получив образование, готовились продолжить борьбу отцов «за светлое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е будущее». Сяо, которого они считали своим родным отцом, стал знатым железнодорожником. Угроза порабощ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американскими интервентами всколыхнула китайский народ. Сян Сун и Сюн Ювор вместе с китайским юношей Хва Еном и девушкой Сянь Лань вступают в ряды китайских добровольцев. Кульминационным моментом спектакля явилась встреча Сяо с Ли Иром, узнавшем, что дети живы и служат в его соединении.

Героические будни фронтовой жизни, встреча отца с детьми и другие события в жизни героев пьесы взволновали зрителя. Этому способствовала и неплохая игра актеров. С большой убедительностью артист Сон Бен Хо воссоздал образ старика Сяо. Артистка Ким Ен Сун, исполнившая роль жены Ли Ира, показала характер корейской женщины. С чисто национальной грацией и мягкостью создали образы молодых девушек актрисы Татьяна Сон (Сюн Ювор) и Любовь Сон (Сянь Лань).

Смелость и мужество своих героев показали артисты Пак Чун Бен (Сян Сун) и Пак Павел (Хва Ен). Артисту Николаю Ни приходилось самому рисовать, как автору пьесы, образ Ли Ира, который в сценарии дан (как утверждает автор рецензии) немного декларативно. Критик отметил также, что растянуты некоторые диалоги, не совсем оправданны монологи, маловыразителен образ американского офицера (артист Ше Ен Ун). В заключение рецензент писал, что автору пьесы и режиссеру еще предстоит поработать над созданием некоторых персонажей и над языком произведения, т.к. он недостаточно выразителен.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И.Цупенкова(Костанова)

(Из книги «Долгая дорога к большой сцене», 2001)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иглашает на работу молодых людей на должность корреспондента.

Испытательный срок 3 месяца, знание ПК на уровне пользователя, корейский - начальный уровень.

Тел. 43-59-80, 43-67-85.

Контактный телефон: 43-67-85, 43-72-94.

##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 새고려신문 살리자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 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вложит 5 млрд долларов в развитие туризма в провинции Канвонд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намерено вложить большие средства в развитие туризма в провинции Канвондо.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выступая в пятницу на конференции «Видение стратегии экономики мира в провинции Канвондо». Он отметил, что жители провинции Канвондо как никто другой знают, что мир - это залог развития экономики. В качестве примера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назвал программу туристических поездок в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горы Кымгансан. Мун Чжэ Ин также сообщил о планах открытия в демилитаризованной зоне «Троп мира», организации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музыкального фестиваля DMZ и фестиваля документального кино, а также создания там центра «мирного туризма». Для этого к 2030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выделить 5 млрд долларов. В провинции Канвондо также планируется улучшить систему соцобеспечения, расширить сеть культурных объектов, реализовать концепцию инновационных городов, создать центр развития новейших медицинских технологий.

##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СМИ призвали Сеул действовать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е СМИ в очередной раз обрушились с критикой на США и южн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й союз, отметив необходимость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разрешать проблемы в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26 апреля пропагандистский сайт «Уриминчжоккири» опубликовал статью, в которой Пханмунчжомская декларация от 27 апреля названа декларацией народного единства и суверенитета. В статье говорится, что её тщательное исполнение является дорогой к мирному будущему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и развитию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Авторы статьи также указали, что Юг должен проявить чёткую позицию и действовать, не оглядываясь на кого бы то ни было. Таким образом, Север, судя по всему, наращивает давление на Юг. Друго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е пропагандистское издание «Мэари» сообщило: «Южно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должна понимать, что закупка американского оружия и другое воен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лишь усиливают страдания народа, являясь проявлением подчинения Вашингтону, которое приведёт к нарушению мира и стабиль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 В Кояне открылась Международная выставка цветов

26 апреля в городе Кояне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состоялось открытие крупнейшей в стране Международной выставки цветов. Она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с 26 апреля по 12 мая. На этот раз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водится в 13-й раз. Посетители смогут увидеть огромное разнообразие цветов. Так, вниманию посетителей предлагаются около ста открытых садов. Свои композиции подготовили известные флористы из Венгрии, Бельгии и Японии. Всего в выставке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355 компаний из 30 стран мира и 15 зарубежных профильных госучреждений.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ходит в Озёрном парке района Ильсан города Кояна и в районе Цветочной отрасли Вондан.

## Внутренняя миграция в РК сократилась

Активность внутренней миграции в РК в марте значительно снизилась. По данным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татистиче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в прошлом месяце в другие районы и населённые пункты переехали 641 тыс. человек. Это на 9,4% меньше, чем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прошлого года. Мартский показатель оказался самым низким с 1975 года. Его снижение связано с неуклонным сокращением объёма операций купли-продажи недвижимости с ноября прошлого года. Так, по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сухопутных территорий и транспорта, количество таких операций в марте снизилось на 44,7%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составив 51.357. Это минимальная отметка с марта 2006 года. 65,3% миграции составили переезды в пределах отдельных городов и провинций. Коэффициент внутренней миграции, рассчитываемый из отношения количества переезжающих на 100 человек, снизился на 1,5%, составив 14,7%.

## Мартовский уровень рождаемости в РК – самый низкий с 1981 года

В феврале этого года количество новорождённых сократилось в РК на 6,9% в годовом исчислении, составив 25.700 человек. Это минимальная отметка с начала сбора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статистики в 1981 году. Как сообщили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статистическом управлении, такая ситуация связана с изменениями в структуре населения. Количество браков упало до минимальной с 1981 года отметки в 18.200. Коэффициент рождаемости - среднее число рождений у одной женщины за всю её жизнь при сохранении существующих уровней рождаемости – уменьшился в феврале до рекордно низкого уровня 0,98. Между тем, для поддержания численности населения на стабильном уровне в 51 млн человек коэффициент должен составлять 2,1.

(РКИ)

## Я, ты, он, она – вместе дружная семья!

*Приехали мы все сюда из разных уголков,  
Живем мы дружно и легко – и нет среди нас врагов!  
Кореец, русский, казах и узбек –  
Мы стали дружной семьей и будем ею навек!  
Я, ты, он, она – ВМЕСТЕ ДРУЖНАЯ СЕМЬЯ!*

Команда учеников из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сполнила матросский танец «Яблочко» и станцевала вальс «На сопках Маньчжурии». Ученики средней полосы России (Урал и Сибирь) научили приветствию футбольного клуба «Амкар» из Перми и спели песню группы «Чайф» из Екатеринбурга. Звучали



27 апреля 2019 года учителя, родители, ученики Русской Гимназии в Пусане собрались в школе, чтобы поделиться друг с другом и с гостями ФЕСТИВАЛЯ ДРУЖБЫ НАРОДОВ стран СНГ красотой национального костюма, культурными традициями своей малой родины и кулинарными изысками.

трогательные стихи о любимом Ленинграде и родном Владивостоке. Бурятская команда устроила «вкусное» соревнование в поедании национального блюда «Буузы» на скорость. А ученики из Казахстана в красочных национальных костюмах с музыкальными инструментами показали свадебный обряд

«Беташар». Узбеки рассказали об истории возникновения плова, а потом угощали им всех гостей. Белорусы кружились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шуточном танце. А сахалинцы исполнили любимую песню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Ариран».

Невероятным многообразием и богатством культурных традиций отличается наша русская школа, где благодаря таким праздникам воспитываются с детства в детях уважение к другим народам и приходит глубокое понимание, что дружба народов – это основа мира и согласия на Земле.

В рамках Фестиваля также прошло торжественное награждение победителей акции «Тотальный диктант 2019», которыми стали Генконсул РФ в Пусане Рябков Г.Г., Тен Ж.В., Лим Анастасия, Фролова Наталья.

Во время Фестиваля проходила ярмарка-распродажа книг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настольных игр и детских игрушек, организованная Sasha Don. Работали мастерские для детей «Русская народная вышивка» (#AnnaBondarenko), «Букеты из мыльных розочек» (#KaterinaVorobeva), «Слайм» (#JeeYulia).

Благодарим всех гостей и надемся, что проведение Фестиваля дружбы народов стран СНГ станет ещё одним традиционным ежегодным мероприятием Русской Гимназии в Пусане.

**(Источник: Russian College Busan – Русская Гимназия в Пусане)**

## «СЭ КОРЕ СИНМУН» объявляет о литературном конкурсе на корейском и русском языках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в честь 70-летия газеты объявляет о проведении литературного конкурса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и конкурса эссе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Работы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могут быть любого содержания. Эссе на русском ограничивается темами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в том числе история семьи),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культура. Ограничений по возрасту для участия нет.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в редакции по адрес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Чехова, 37.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указать обязательно). В электронном варианте работы можно прислать по следующим адресам: [vika131065@gmail.com](mailto:vika131065@gmail.com), [vika131065@mail.ru](mailto: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mailto:skr@sakhalin.ru).

Указать фамилию, имя, возраст, профессию, место учебы(для учащихся), контактный номер телефона.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43-67-85, 43-72-94.

Работы принимаются до 20 мая 2019 г.

Призы:

Поездка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в т.ч. путевка для школьников в летний языковой лагерь при университете Генхи на 2 недели).

Лауреаты награждаются грамотами и подарками.

Все участники получают сертификат участника.

## Ресторан "Гагарин"

Шведский стол (будние дни)

с 12.00-15.00

Юбилей, свадьбы, дни рождения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заявке)

с 18.00-24.00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Комсомольская,133  
тел.: 49-84-02



##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19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за 1 месяц: 82 руб. 14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Новое здание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торжественно открыл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Учреждение культуры с 1950 года располагалось в приспособленных офисных помещениях, празднич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риходилось проводить на различных городских площадках. Теперь творческие коллективы обрели просторный дом на перекрестке проспекта Победы и улицы Комсомольской.

В здании, где раньше располагался банк «Сахалин-Вест», за два года провели капитальный ремонт. Здесь обустроили студию звукозаписи, выставочный зал, творческую мастерскую, конференц-зал. Отдельный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ий зал позволяет создать на базе центра образцовые танцевальные коллективы. Концертные площадки для проведения массовых мероприятий предусмотрели как внутри здания, так и снаружи.

На уличной сцене накануне и состоялось торжественное открытие нового дома для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ОЦНТ). С этим событием работников культуры и увлеченных творчеством сахалинцев от имени главы области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поздрав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Сергей Наумов.

– ОЦНТ – это не просто аббревиатура, это целый удивительный мир, открывающий душу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Здесь не только бережно охраняют традиционную культуру, но и заражают любовью к ней современную молодежь, – отметил зампред.

Коллектив ОЦНТ сохраняет и популяризирует русское народное творчество, культуру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и других народов, проживающих в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Центр занимается организацией на Сахалине фестивалей и конкурсов, в том числе международных, а также готовит творческие делегации, представляющие острова на всероссийском и международном уровне. Именно сотрудники ОЦНТ проводят торжественные церемонии, посвященные главным победным датам – 9 мая и 2 сентября на площадях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 Новый дом для нашего коллектива – это просто сбывшаяся мечта, – поделилась исполняющая обязанности директора ОЦНТ Татьяна Валуйских. – Теперь мы сможем создать новые творческие коллективы,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начнем набор детей. У наших сотрудников уже море идей для проектов, которые станут яркими событиями в культурной жизни островной области и воздействуют на людей всех возрастов.

На торжественном открытии молодежная группа Men in Black исполнила отечественные и зарубежные хиты.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ое мастерство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 ансамбль эстрадно-спортивного танца «Эдельвейс», а коллектив «Ханыль» покорила зрителей игрой на корейских барабанах.

Напомним,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Культура»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до 2024 года планируется построить 45 новых объектов и капитально отремонтировать 73. Уже в этом году начн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дома культуры в Быкове, этно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в Чир-Унвде, центра культурного развития в Некрасовке. Запланирован капремонт сельского дома культуры в Буюклы.

В этом году начнется проектирование первого в истории области многофункциональн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С его появлением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могут приезжать творческие коллективы мирового уровня, в том числе симфонические оркестры и балетные труппы.

##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ыросли показатели строительства жилья и добычи нефти

Подведены итог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за январь-март этого года. Объем валов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одукта составил 283,3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что на 5,1 процента больше, чем за аналогичный период 2018 года. Промышленн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выросло на 5,5 процента - до 277,4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введено свыше 85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жилья, что почти вдвое больше, чем в первом квартал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Добыча нефти, включая газовый конденсат, достигла 5,2 миллиона тонн. Сахалинские угольные предприятия добыли 2,6 миллиона тонн угля. Эти результаты почти на 11 процентов превышают прошлогодние.

Кроме того, в регионе отмечался рост производства рыбных консервов и пресервов, молочной продукции, сыров, сливочного масла, мясных субпродуктов, хлебобулочных изделий, в том числе диетических.

Островные предприятия произвел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й продукции на 90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 на 8,9 процента больше, чем за аналогичный период 2018 года. Увеличилось производство молока (на 28,1 процента), яиц (на 3,2 процента) и мяса (на 0,8 процента). Выросло поголовье крупного рогатого скота, птицы, свиней.

На потребительском рынке оборот оптовой торговли вырос на 13,2 процента,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итания – на 3,8 процента. Сохраняется рост объемов платных услуг для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розничной торговли.

Уровень регистрируемой безработицы на конец марта 2019 года сложился на уровне 0,72 процента.

## Сахалин присоединился к всероссийской акции «Вахта памяти»

Митинг, посвященный открытию всероссийской военно-патриотической акции, состоялся 26 апреля на площади Славы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Ветераны,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ласти, участники поискового движения и школьники возложили венки к Вечному огню.

Главная задача «Вахты памяти» - поиск останков воинов, отдавших свою жизнь за Отечество, их захоронение, установление имен павших. За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на Сахалине удалось установить имена 389 погибших солдат и офицеров. Важность проведения поисковых работ подчеркнул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первого заместителя руководителя аппарата губернатор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области Владислав И.

– Символично, что череду событий, посвященных празднованию Дня Победы, мы начинаем со старта всероссийской акции «Вахта памяти». Благодаря поисковому движению, каждый год история войны пополняется именами людей, которые сражались за Родину. Сегодня здесь собрались ветераны, действующие военнослужащие, молодежные детские общественные объединения, чтобы почтить память павших солдат и дать старт поисковому сезону, – сказал Владислав И.

За большой личный вклад в установление имен и судеб пропавших без вести военнослужащих сахалинскому поисковику Евгению Никонову вручен знак отличия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РФ «За отличие в поисковом движении III степени».

После возложения цветов к Вечному огню от площади Славы двинулась колонна техники РОСТО ДОСААФ. Участники пробега отправились по южным районам Сахалина, где будут встречаться с молодежью и ветеранами. В акции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члены детских и молодежных военно-патриотических объединений,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оветов ветеранов, казачества, военного комиссариата, воины-интернационалисты, волонтеры. В то же время сахалинские поисковики готовятся продолжать работу. Руководитель регионального отделения «Поисковое движение России» Артем Бандура рассказал о планах на сезон.

– Работать будем до поздней осени. Планируем отправиться на остров Шумшу, на место проведения Курильской десантной операции. Надеемся, что нам удастся обнаружить останки солдат и установить имена погибших, – рассказал Артем Бандура.

Напомним, активисты местного отделения «Поискового движения России» уже несколько лет проводят экспедиции на остров Шумшу. Им удалось обнаружить останки нескольких десятков советских воинов, погибших во время Курильской десантной операции.

## В День флаг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стоялась необычная акция

Более 500 человек сегодня собралась акция у музейно-мемориального комплекса «Россия – моя история»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Школьники, студенты и добровольцы построились в виде большого сердца вокруг флаг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Чествование главного символа островов впервые прошло в таком формате.

В руках сахалинцы держали шары голубого цвета и маленькие флажки. Фигуру, которую образовали участники акции, сняли на видео с высоты птичьего полета.

От имени главы регион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ахалинцев с памятной датой поздравил замминистра спорта, туризм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гор Умнов.

– Акция в таком формате проходит впервые. И очень здорово, что ее организовала молодежь. Считаю это мероприятие важным для региона – сахалинцы должны знать о ключевых памятных датах не только в истории нашего государства, но и региона, – отметил Егор Умнов.

Полотно цвета морской волны с изображением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 одно из самых узнаваемых в нашей стране. В 1997 году губернатор региона Игорь Фархутдинов подписал закон №34 «О флаге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субъек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26 апреля того же года закон был принят областной Думой.

## На Сахалине впервые в истории состоялся торжественный развод караулов пожарно-спасательного гарнизона

Знаковое событие на площади Победы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посвятили 370-летию пожарной охраны России. После прохождения парадных расчетов и техники здесь открылась выставка пожарно-спасательных автомобилей. Для юных гостей праздника были организованы конкурсы на противопожарную тематику.

Начался торжественный развод с выноса знамени Гла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МЧС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оенный оркестр исполнил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гимн. С поздравлениями к сотрудникам пожарно-спасательного гарнизона, а также принявшим участие в церемонии учащимся кадетской школ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обратились начальник главка Андрей Андреев, представители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и законодательной власти региона.

С праздником сахалинских пожарных поздрав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ладимир Сидоренко.

– Желаю вам благополучия, удачи, и, конечно же, сухих рукавов, – сказал зампред. –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 один из те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где силами противопожарной службы сегодня «закрыты» сто процентов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Наши пожарные успешно ведут борьбу с огнем, ликвидируют последствия катастроф и стихийных бедствий. Ваш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 заслуживает признания и огромного уважения.

По словам Андрея Андреева, решение о проведении первого в истории пожарной охран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оржественного развода караулов было принято неслучайно.

– Где наши сограждане как правило видят пожарных? Чаще всего – при просмотре хроники происшествий, либо в машине на встречной полосе, которая мчится кому-то на помощь с включенными спецсигналами. Сегодня у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была хорошая возможность посмотреть на огнеборцев в спокойной обстановке и лично поздравить с наступающим праздником, – сказал начальник Гла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МЧС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Торжественный марш парадных расчетов и проезд пожарно-спасательных автомобилей завершили официальную часть мероприятия. После этого гости праздника направились на выставку техники и конкурсные площадки.

Свои умения зрителям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 начальник караула пожарной части №7 Сергей Костюков. В показательное выступление вошли элементы первого этапа пожарно-спасательного многоборья. Это «русские махи» 32-килограммовой гирей, отжимания от штанги и ее жим, кантование автомобильной покрышки весом 98 килограммов на расстояние 20 метров, затем ее перенос на 10 метров и перемещение с помощью кувалды на 5 метров.

Самые смелые зрители пробовали повторить упражнения, однако пройти весь этап в полном обмундировании пожарного общей массой 20 килограммов не решился ни один из присутствовавших.

Еще одной популярной площадкой стала выставка техники и пожарно-спасатель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Там можно было посмотреть и примерить на себя индивидуальные средства защиты органов дыхания. Все образцы оборудования повседневно используют пожарные.

На выставке техники также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работы сахалинских школьников из детского технопарка «Кванториум». Это концептуальные модели роботов, которые уже в недалеком будущем смогут вести эффективную борьбу с огн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годня уделяет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материально-техническому оснащению противопожарной службы. В конц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на средств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была закуплена беспрецедентная партия новейше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для огнеборцев общей стоимостью 90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Это 16 видов спасательных приборов и амуниции, в частности, 115 комплектов теплоотражающей одежды, 275 противопожарных ранцев, 217 дыхательных аппаратов на сжатом воздухе, 13 тепловизоров, 5 переносных дымососов, 15 пневматических прыжковых устройств, 34 манекена-тренажера для спасателей. В конце января региональные власти закупили четыре новых снегоболотохода для оказания помощи в доставке людей и грузов в тяжелых дорожных и климатических условиях.

Также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ыли построены 16 новых пожарных депо. Одно из них в конце апреля 2019 года открылось в селе Онор Смирновского района. До конца года в регионе возведут еще два современных депо – в селе Углезаводск Долинского района и селе Восточное Макаровского района. На эти цели в областном бюджете предусмотрено 65 миллиона рублей.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여성독립운동 서울전] ③임정의 깃발 아래 모여들다

(전호의 계속)



농촌계몽운동에 앞장선 최용신. [국립여성사 전시관 제공]

학생과 청소년 단체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1920년과 1921년 김옥련·고순효·김계석의 삶도 사진, 신문기사, 영상 등으로 재현된다.

조선여자교육회와 조선여자청년회가 각각 탄생한 데 이어 1922년 6월 YWCA(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가 조직됐다. 심훈의 소설 '상록수' 여주인공 채영신의 실제 모델인 최용신은 경기도 수원군 반월면(지금의 안산시) 샘골에 YWCA 농촌지도원으로 파견돼 농촌 계몽운동을 펼쳤다.

1927년 신간회의 자매단체 격으로 발족한 근우회(權友會)에는 김활란·유영준·유각경·최은희·현신태 등 민족주의 계열의 여성운동가들과 사회주의 운동가 박원민·정종명·주세죽 등이 참여했다. 광주 여고보에 재학 중이던 고순례·김귀선·김금연·박옥련 등은 1928년 비밀결사 소녀회를 만들어 활동하다가 이듬해 광주학생운동의 기폭제가 됐다.

근우회의 멤버 주세죽은 허정숙·고명자와 함께 대표적인 여성 공산주의 항일운동가로 꼽힌다. 이들은 조선공산당의 트로이카인 박현영·임원근·김단야의 애인이자 동지이기도 하다. 그동안 빛을 보지 못



광주여고보 비밀결사 소녀회 회원들의 사진. [국립여성사 전시관 제공]

하다가 2017년 조선회의 소설 '세 여자'로 뒤늦게 부각된 이들의 활약상이 전시장에서 재조명된다.

여성 공산주의 항일운동가 고명자·주세죽·허정숙(왼쪽부터). [국립여성사 전시관 제공]

'하와이 사진 신부' 천연희의 기구한 인생 역정도 엿볼 수 있다. 신랑감의 사진만 보고 하와이에 도착해 한인 사탕수수 노동자와 첫 가정을 이룬 그는 세 번의 결혼을 통해 자식 6명을 키워내면서도 독립운동과 사회운동에 헌신했다. 근우회 춘천지부 회원 명단을 담은 공책과 천연희의 메모 노트도 목은 먼지를 털고 모처럼 세상에 나온다.

## [여성독립운동 서울전] ④적을 부수고 새집을 세우고

의열단·조선의용대·광복군에 뛰어든 여성 독립운동가들

'한국의 잔 다르크' 지복영 등 민족과 여성의 해방에 헌신

(1931년 만주사변에 이어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키며 중국 본토 깊숙이 쳐들어오자 상해(上海)에 동지를 둔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항주(杭州)·남경(南京)·장사(長沙)·광주(廣州)·유주(柳州) 등을 전전하며 어렵게 독립운동의 명맥을 이어간다.

여성독립운동가들은 의열단과 조선의용대 등에 투신해 무장투쟁을 벌이는가 하면 임정의 대가족



을 이끌며 한국독립당 재건에 나선다. 임정이 1940년 중국 내륙의 중경(重慶)에 안착하자 그해 6월 한국여성혁명동맹을 창설해 민족 통합과 독립의 길을 모색한다. 이어 9월 17일 창설된 한국광복군에 국민의 일원으로 당당히 참여한다.

아버지 지청천 장군의 뜻에 따라 광복군이 된 지복영. [국립여성사 전시관 제공]

출처: 연합뉴스

[우리말로 깨달다]

## 세수와 깨달음

미얀마 만달레이에 가면 마하무니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미얀마의 3대 보물 중 하나인 불상이 있습니다. 만달레이에 특강을 갔다가 새벽 예불에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정말 많은 사람이 예불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저 같은 관광객보다는 무언가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로 가득하였습니다. 간절함은 늘 따뜻합니다. 간절함은 늘 감동을 줍니다. 가만히 마음을 가다듬고 앉아있으니 저도 경건해지고, 간절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 조현용(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새벽 예불의 주요한 예식은 부처님의 얼굴을 닦는 일이었습니다. 순서에 따라 다양한 형식이 함께 하였지만 저는 세수를 하는 장면의 감동을 잊지 못합니다. 부처님의 얼굴을 씻어주는 사람의 모습에서도 감동이 있었지만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애절하게 기도하는 미얀마 사람의 모습에서 순수한 바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바라 그렇게 안쓰러운 표정으로 연신 기도를 올렸을까요?

정말로 정성스럽게 세수를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경건함과 깨달음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세수를 하는 것만으로도 감동이 옵니다. 같이 간 미얀마 선생님들의 말에 따르면 저렇게 닦은 물을 다시 나눠 주어 집으로 가져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부처님을 닦은 물마저도 귀한 겁니다. 미신 같은 행위일 수도 있겠지만 간절함이 가득한 모습이 기억납니다. 물을 받기 위해서 늘어선 줄이 길었습니다. 새벽 탁발승에게 공양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겹쳐졌습니다.

아침에 세수를 하다가 문득 마하무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쉽게 부처님의 얼굴을 닦아주어야 공덕을 쌓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 분이니 귀하겠지요. 하지만 우리 역시 깨달아야 하는 존재이기에 스스로도 충분히 귀한 존재임을 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부처님의 얼굴을 닦아줄 수도 없고, 직접 닦을 수 있는 기회도 거의 없을 겁니다. 새벽 예불에 가서 부처님의 얼굴을 정성스레 닦아주듯이 우리 스스로의 얼굴도 정성껏 닦으면 어떨까요? 그러면 세수를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공덕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매일 아침이 우리에게 공덕을 쌓는 시간이겠네요. 세숫물을 집으로 가져올 필요도 없겠네요.

부처님을 얼굴을 닦듯이 나의 얼굴을 닦으며 살아가는 내 인생에 고마움을 느낍니다. 얼굴은 나의 인생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굴에 진 주름은 때로 내 웃음자국입니다. 기뻐서 웃어도 주름이 생기죠. 어떤 주름은 내 괴로움의 흔적입니다. 이마와 양미간(兩眉間)에 점점 깊어져 가는 주름은 때로 서글픈 느낌을 줍니다. 참 외로웠구나, 참 힘들었겠구나 생각하니 스스로가 가여워지기도 합니다. 기쁜 주름과 괴로운 주름은 모습이나 느낌이 다릅니다. 앞으로 기쁜 주름이 더 늘어나기 바랍니다.

누구나 자신의 얼굴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접 하나에도 사연이 있고, 상처 하나에도 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모르는 내가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저렇게 생겼구나 하고 놀랄 때도 있습니다. 내 눈도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코는 어떨까요? 제 귀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제 귀를 그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보니 어릴 때 제 귀가 부처님 귀처럼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세히 보면 꽤 괜찮은 듯해서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아침에 세수를 하면서 눈도, 귀도, 코도 다시 바라보고 고마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참 귀한 시간이네요.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참 나를 잘 지켜주었습니다. 내가 보는 세상, 듣는 세상, 냄새 맡는 세상이 귀하고 고맙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도 귀도 깨끗이 씻어 줍니다. 저는 매일 아침 세수를 하며 공덕을 쌓습니다. 그리고 내가 귀함을, 사람이 귀함을 몸으로 깨닫습니다. 세수는 깨달음입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 2019 세계한인회장대회 1차 운영위원회 백두산서 개최

23~26일, 백두산서 운영위원 20여명 참석한 가운데 개최

‘2019 세계한인회장대회 제1차 운영위원회’가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백두산에서 개최됐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 이하 재단) 주최로 열린 이번 운영위원회에는 2019 세계한인회장대회 공동의장인 박원우 재중국한국인회장, 강인희 러시아·CIS한인회장, 연합회장을 비롯한 대륙별 총연합회장과 지역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으며, 2018 세계한인회장대회 결과 보고와 2019 세계한인회장대회 기본 계획 의결, 한인사회 발전을 위한 자유 토론 등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운영위원회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염원하고 그 과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재외동포들의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백두산에서 개최되었다.

운영위원회가 개최되기 하루 전날인 23일에는 운영위원들이



운동주 시인 생가와 김약연 공덕비, 명동학교 옛터를 방문, 150년 재외동포사회가 낳은 민족시인이자 독립운동가인 운동주 시인의 삶과 시를 돌이켜 봄으로써 동포들이 한민족의 일원으로서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모국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24일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금년 세계한인회장대회의 운영과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대회 기간 동안 지역 내 한인회장간 교류는 물론, 타 지역 한인회

장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또한, 각 연합회별, 지역별로 시행되고 있는 재외동포 차세대 사업과 공공외교 활동 사례들을 공유하며, 지역을 넘어 한인회간 상호 교류하고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2019 세계한인회장대회 및 제13차 세계한인의날 기념식은 오는 10월 초 3박4일 일정으로 서울 그랜드 워커히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다.

(재외동포재단)

##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그 외 심사위원들이 합창의 조화와 깨끗함을 평하기 위해 보컬 부문 출연자들이 몇가지 작품을 아카펠라로 불러주었다. 심사위원들은 보컬 외에도 다른 부문(무용, 음악 연주, 장식응용예술, 심지어 익살 광대 놀이)에서도 우수자들을 선정했다고 주중양도시 홍보실이 전했다.

"경연대회는 훌륭했고 심사위원회는 수준높은 전문가로 구성되었다. 그래서 한 미숙단 - 사할린민속합창단-이 1등을 했으며, <러시아 테렘>은 대상을 받은 것이 더욱 더 좋았다. 경연자들이 상당히 많았고 모두가 좋은 수준을 보여주었으니 우리는 마지막까지 누가 이겼는지 몰랐다. 다만 우리가 잘 출연했다는 자신이 있었다"고 <루스키 테렘>현민요양상블의 단장 안드레이 펠니첸코가 소감을 나누었다.

### "Русский терем" стал обладателем гран-при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конкурса "Солнцеворот"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прошел девятый всероссийский конкурс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Солнцеворот". Два островных коллектива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одной из его номинаций — вокале. Помимо них, за победу в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сражались десятки народных коллективов, в основном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Конкурс проходил с 25 по 27 апреля. Островная делегация вышла масштабной — 26 человек, разделенных на два коллектива. В репертуаре сахалинских народников были различные песни.

Сахалинский народный хор выступил в категории "Любители" с композицией "Я на печке молотила", а "Русский терем", заявившийся в категории "Профи", выбрал традиционную "Ой, цветет калина". Кроме того, несколько произведений вокалисты спели а капелла, чтобы жюри могло оценить слаженность хора и чистоту исполнения. Помимо вокала жюри определяло лучших и в других номинациях — хореографии, инструментальной музыке,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м искусстве и даже скоморошских забавах, сообщала пресс-служба мэрии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 Конкурс получился прекрасный, расширенный, большой, с серьезным составом жюри. И нам вдвойне приятно, что одному коллективу — сахалинскому народному хору — удалось стать лауреатом первой степени, а "Русский терем" был удостоен гран-при, самой почетной награды этого конкурса. Соперников было много, даже очень много, все показали приличный уровень и мы до последнего волновались, не знали — кто победил. Были уверены только в одном — что мы себя очень хорошо показали, — поделился впечатлениями Андрей Мельниченко, директор ансамбля современной народной песни "Русский терем".

### 노글리키, 6개월 아이 «달리기대회» 개최

노글리키구역여가센터 직원들이 가족을 위한 축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축제의 특징은 6개월부터 3살 아이들의 <달리기>. 그외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할 계획이고 현지 아티스트들을 유치할 생각이다.

축제는 15일 국제가정의 날을 앞두고 주말에 열릴 계획이다.

<미니 달리기> 경연 참가자들을 4그룹으로 나눌것이다. 1살이 안된 아이들의 <달리기>거리는 5미터다. 스타트에서 피니쉬까지 이들은 네발로 기는 것이다. 부모의 역할은 아이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예를 들어 팔랑이를 쥐고 흔들며 아이의 관심을 유지하는 것이다. 주최측은 이런 경기가 완전히 안전하고 재미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가 센터에는 이 행사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가 있다. 행사장에서 성인과 어린이들을 실물 크기의 인형들이 즐겁게 할 것이다. 가족 사진가와 아이들의 건강에 대한 부모의 질문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답변할 수 있는 소아과 의사를 유치 할 가능성도 있다. 날씨가 좋을 경우 유모차 퍼레이드를 계획한다.

### В Ногликах собираются устроить «забег в ползунках»

Большой праздник для всей семьи планируют устроить сотрудники районного центра досуга в Ногликах. Его главной фишкой станут «забеги» на скорость малышей от полугода до трех лет. Кроме того, планируется устроить мастер-классы, задействовать местных артистов.

Праздник хотят провести в выходной день наканун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дня семьи, который отмечается 15 мая.

Детей - участников мини-соревнований разделят на 4 категории. Дистанция малышей до года — около 5 метров. От старта до финиша они будут ползти. Задача родителей в таких забегах — мотивировать ребенка, удерживать его внимание, например, с помощью погремушек. Организаторы отмечают, что это будет совершенно безопасно и очень весело.

У центра досуга очень много идей насчет эт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Взрослых и детей на празднике будут развлекать ростовые куклы. Возможно, получится привлечь семейного фотографа и врача-педиатра, который в неформальной обстановке ответит родителям на вопросы о здоровье детей. А в случае хорошей погоды планируется устроить парад колясок.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새고려신문 창간 70주년 기념

## 2019년 우리말 및 러시아어 문예콩쿠르

2019년 6월 1일은 새고려신문 창간 70주년 되는 날입니다. 이와 관련해 새고려신문사는 문학콩쿨(글짓기)을 개최합니다.

• **공모대상:** 사할린 및 연해주 · 극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현지인)

• **공모부문:** 글짓기, 체험수기

• **공모주제:** 한민족의 궁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민족전통 문화에 대한 자량과 긍지심을 일깨우는 글. 한국어 본문 주제는 아무 제한이 없으나 러시아어로는 <우리 가족>, 한국어와 한국 문화, 전통, 풍습, 사할린 한인 역사에 관련 글만 받습니다.

• **공모기간:** 2019년 5월 중순까지

• **시상:** 상장과 한국방문권 비롯한 여러상품

• **주최:** 사할린 새고려신문사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콩쿠르 자료들을 e-mail: skr@sakhalin.ru, vika131065@mail.ru 아니면 유즈노사할린스크, 체호브거리 37, 새고려신문사로 보내주시시오.

전화: 43-59-80, 43-72-94.

콩쿠르조직위원회

# Заказывай еду онлайн

# eda.sakh.com

ООО "Сах.ком", ОГРН 1046500642264,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вторник 16-00  
Фактически - вторник 16-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